

전남 서부권

‘폼바’ 탄생지 무안, 30주년 무대

내일 회산백련지서

연극 ‘폼바’ 탄생 30주년을 기념하는 공연이 13일 무안군 일로읍 회산백련지 주무대에서 펼쳐진다. 무안군은 백련 토요문화마당과 ‘2011 무안백련 문화마당’의 마지막날인 이날 ‘무안 문화의 날’을 테마로 폼바명인 초청공연과 무안과 남도소리 향연, 한여름밤의 백련음악회 등 다양한 공연을 연다. 특히 폼바공연 30주년을 기념해 정통 폼바 전승자와 고수를 초청한 기념공연도 예정돼 있다. 폼바는 일제 강점기와 8·15 해

방기에 살다간 천장근의 이야기를 통해 민초들이 겪었던 시대의 아픔을 풍자와 해학으로 담아낸 마당극이다. 1982년 무안 일로에서 고 김시라(1945~2001)선생에 의해 ‘친애하는 각설이 동지 여러분(폼바)’이 초연된 후 국내외에서 5천회가 넘는 공연으로 한국 기념극에 오르기도 했다. 조순형 일로폼바 보존회장은 “30주년을 기념해 폼바 복원사업이 지역의 대표적인 문화관광 자원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서부취재본부=김민준기자 jun@

해남 한여름밤의 문화 향연

16~20일까지 불꽃쇼 등

해남군은 오는 16일부터 20일까지 5일간 매일 밤 8시 문화예술회관에서 ‘2011 해남 한여름밤의 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올해로 6회째를 맞는 이번 축제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시행한 2011 지방문화회관 기획프로그램 공모사업에서 해남문화예술회관의 기획공연이 선정돼 복권기금을 지원받아 열린다. 이번 축제는 서커스, 가요콘서트, 퍼포먼스 공연, 영화상영 등 여름밤 무더위에 지친 군민들에게 삶의 활력을 불어넣는 다양한 장르의 레퍼토리로 구성된다. 첫째 날인 16일 불꽃쇼를 시작

으로 한국곡예의 자존심을 지키며 70년의 전통을 자랑하는 ‘동춘서커스’의 묘기가 펼쳐지고, 둘째 날에는 인기 가수 김연자·김범룡·민해경·서울패밀리 위일정이 출연하는 ‘한여름밤의 가요콘서트’가 개최된다. 이어 18일에는 2010년 광주아시아안게임 폐막식 초청공연작품인 ‘최소리와 아리랑 파티’ 퍼포먼스 공연이 열린다. 19~20일에는 영화 ‘씨리’와 ‘위험한 상견례’가 야외에서 상영된다. 해남군 관계자는 “한여름밤의 문화축제는 지역 문화예술의 활성화를 위한 문화예술품의 수준을 한층 향상시키는 축제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서부취재본부=박희석기자 dia@

모형 F1자동차 스피드 축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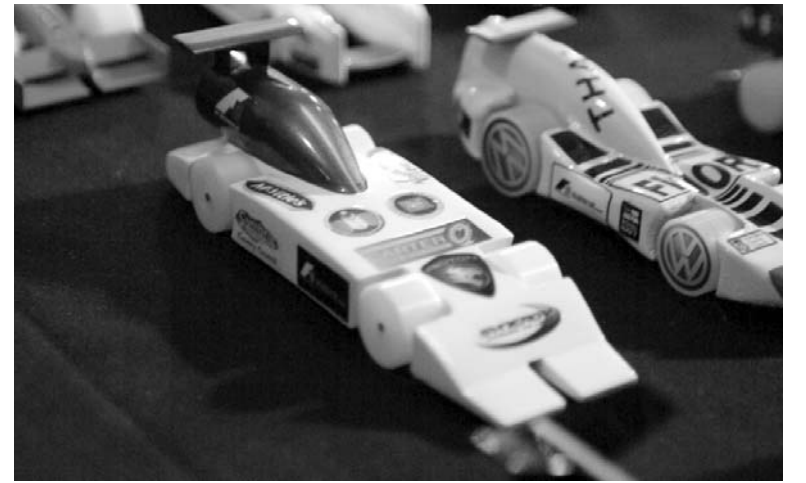
내일 목포 평화광장서 50팀 180명 실력 대결

청소년·가족 경기로 나눠 시민축제 방식으로

‘2011 청소년·가족 모형 F1자동차 경연대회’가 13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목포 평화광장에서 열린다. 또한 대회와 병행해 ▲모형 F1자동차 경주 체험 ▲모형 F1자동차 즉석 제작 교육 ▲모형 F1자동차 제작 교육 프로그램인 ‘F1 in Schools’ 교육쇼도 열린다. 목포대 자동차기술연구소 주관으로 열리는 이번 경연대회에는 지역 중·고등학생과 어린이를 가진 가족 등 총 50팀 180여명이 참여해 실력을 겨룬다. 경연대회는 모형자동차 컴퓨터 제작이 필요한 정구경기와 어린이가 직접 만들어보는 가족경기로 나누어 진

행된다. 또한 대회와 병행해 ▲모형 F1자동차 경주 체험 ▲모형 F1자동차 즉석 제작 교육 ▲모형 F1자동차 제작 교육 프로그램인 ‘F1 in Schools’ 교육쇼도 열린다. 목포대 자동차기술연구소 주관으로 열리는 이번 경연대회에는 지역 중·고등학생과 어린이를 가진 가족 등 총 50팀 180여명이 참여해 실력을 겨룬다. 경연대회는 모형자동차 컴퓨터 제작이 필요한 정구경기와 어린이가 직접 만들어보는 가족경기로 나누어 진

(CFD), 컴퓨터제작(CAM/CNC)을 통해 실물로 구현하면서 성능 향상을 꾀하는 과정에서 빠른 자동차의 과학적 원리를 깨운다. 특히 이번 대회에서 처음 선보이는 가족팀 경기는 아이와 부모가 함께 설계하고 당일 손 가공을 통해 즉석 제작한 자동차를 이용해 경주에 참여하는 시민축제 방식으로 치러진다. 정구경기 중·고등부 종합 우승팀과 가장 빠른 자동차, 최고의 경주팀, 최고의 디자인 부문 등 4개 부문에 전남도지사상이 수여된다. 가족경기는 우승, 준우승, 장려상, 최고의 디자인 등 4개 분야에 시상한다. 모든 입상자에게는 부상으로 F1 대회 입장권이 수여된다.



지난해 7월에 개소한 목포대 자동차기술연구소 F1 in Schools 기술지원센터(센터장 전철근 교수)는 그동안 주말과 방학기간을 이용해 지역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해 왔다. 특히 이번 대회의 정구경기 참가자는 기술지원센터에서 8일부터 13일에 걸쳐 진행되는 ‘F1 모형 자동차 실

계 과학캠프’ 참가 청소년들을 주축으로 구성된다. 목포대 관계자는 “향후 F1 in Schools 세계대회에 참가하는 한국대표를 선발하는 대회로 확대해 추진할 예정이다”며 “지역의 특성을 살린 교육사업으로 계속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부취재본부=이상선기자 sslee@

피서철 서남해 뱃길 이용객 줄었다

집중호우·태풍 등 기상악화

작년보다 1만6000여명 감소

올해 피서철 상수기에 서남해 도서를 찾은 피서객이 집중호우와 태풍 등으로 인해 지난해보다 다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목포 해양경찰서(서장 박성국)는 “지난달 23일부터 10일까지 19일 동안 하계 상수기 특별수송을 실시해 21개항로(43척)에 전년 대비 4.3% 감소한 36만3325명이 서남해 뱃길을 이용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37만9500명보다 4.3%(1만6075명) 감소한 것이다. 여객선은 33만9861명으로 1.8% 감소했고, 유도선은 2만3564명으로 30%가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목포해경은 집중호우 및 태풍 등 이상 기후현상이 자주 발생했고 해외여행객 증가로 도서지역 방문객 감소로 이어졌다고 분석했다. 또한 주요 여객선 항로 이용객을 보면 ▲목포~흑산·홍도 5만7591명(-27%) ▲목포~제주 6만5939명(+15%)으로 나타났다. /서부취재본부=이상선기자 sslee@

고구마 가공산업 印尼서 배운다

해남 생산자협 견학

해남군이 지역 대표 특산품인 황토 고구마 가공산업 육성에 나섰다. 해남군과 (사)해남 고구마 생산자 협의회(대표 오상진)는 지난 8일부터 5박 6일 일정으로 고구마 가공산업이 발달한 인도네시아를 방문 중이다. 고구마생산자와 전문가, 공무원 등 14명으로 구성된 방문단은 인도네시아 고구마 농장과 가공공장 규모 등을 파악하고 정부 관계자와 고구마 가공식품 시장에 대한 전망과 과제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지난 1일 설립된 해남고구마 주식회사에서 가공 생산할 예정

인 품목(페이스트, 슬라이스 등)과 인도네시아의 주력 가공 상품에 대한 면밀한 비교 검토도 할 방침이다. 오상진 생산자 협의회 대표는 “해남은 전국 고구마 생산량의 12%를 차지하는 최대 고구마 주산지다”면서 “가공산업은 고구마 산업을 부가가치 향상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인 만큼 인도네시아의 선진기술을 접목해 경쟁력을 키워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해남군은 총 사업비 31억 원을 들여 지난해부터 3년간 황토 고구마를 1·2·3차 산업이 연계된 복합산업으로 육성해 나가고 있다. /서부취재본부=박희석기자 dia@

전 북

가보자! 하늘, 땅 만나는 그곳

내달 29일부터 김제 지평선 축제

‘제13회 김제 지평선축제’가 오는 9월 29일부터 10월 3일까지 5일간 중앙 최대의 수리시설인 벽골제 일원에서 개최된다. 올해 축제는 세계화를 지향하고 지역 고유의 특성을 최대한 살려 전통 농경문화와 김제만의 문화 콘텐츠를 업그레이드한 7개분야 71개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축제 개막 이벤트는 특별히 야간 시간대로 옮겨 ‘뉴 스타트(New Start)!! 희망 김제!’를 테마로 화려하게 꾸며진다. 올해 신규 프로그램으로는 ‘도전 333! 가장 큰 떡 모자이크 만들기’를 통해 색다른 기록에 도전하며 풍년기원 징계맹개 퍼레이드, 도동이 워터 터널, 비고을 문화유산 생생체험, 새만금 비고을 사금찾기 체험’ 등 다채롭게 펼쳐진다. /전북취재본부=홍윤선기자 hnews@

또한 김제의 주체성을 나타내는 명품화된 대표프로그램으로 벽골제 전통설화 쌍룡의 스토리를 테마로 한 ‘벽골제 쌍룡놀이’를 비롯해 김제의 농경문화와 자연을 한눈에 볼 수 있는 대동놀이 ‘비고을 입석 줄다리기’, ‘벽골제를 밝히는 쌍룡 뿔놀이’, ‘지평선 아씨 테마 연날리기’ 등이 마련된다. 특히 체류형 야간 프로그램으로 ‘가을밤 불꽃놀이’와 ‘지평선 가을밤 별자리 여행’, ‘야광 연날리기’ 등이 열리며, 금산사 템플스테이 등 주변 관광자원과 연계한 관광객 유치 프로그램도 진행된다. 김제시 관계자는 “올해 축제에 찾아오는 관광객들에게 새로운 선보이고 장기적으로 체험관광 도시 이미지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전북취재본부=홍윤선기자 hnews@

진안초등학교 “100살 됐어요”

14일 개교 100주년 행사

진안군 진안초등학교가 14일 개교 100주년을 맞는다. 1911년 9월 13일 개교한 이후 100년의 역사를 지켜온 진안초등학교는 올해까지 1만2061명의 동문을 배출했다. 동문 중에는 국회의원을 지낸 이옥동·전휴상·이상욱 동문과 농협중앙회장 출신인 문방홍씨, 육군장성·법조인 등 저명인사를 많이 배출했다. 진안초등학교는 진안 공립보통학교라는 이름으로 4년제 2학년으로 진안향교 명문당에서 문을 열었다. 당시 교사 신축의 어려움으로 학교

에 더부살이를 한 후 학교설립 9년만인 1920년 9월 25일 현 위치에 신축·이전했다. 100주년 기념행사를 추진 중인 윤석정(39회·국회재운 대표이사) 총동창회장은 “개교 100주년을 맞아 지역민과 함께하는 지역축제로 치러질 수 있도록 총동창회 임원진과 기별회장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동창회 측은 ▲13일 전교 재학생 대상으로 한 체험학습 ▲14일 기념비제막식과 기별 동문 노래자랑, 축하공연 등 다채로운 100주년 기념행사를 가질 예정이다. /전북취재본부=강철수기자 knews@



고창 갯벌엔 어떤생물 있을까

서울대와 관·학협력 및 지역사회 개발에 관한 협정을 체결했다.

지난 9~11일 열린 ‘서울대 자연과학대학 하계 과학캠프’에 참가한 지역 초·중학생들이 갯벌 생물을 관찰하고 있다. 고창군은 지난 2009년 서울대와 관·학협력 및 지역사회 개발에 관한 협정을 체결했다. (고창군 제공)

진안 홍삼 명품화 본격 착수

홍삼연구비 13억 확보 고부가가치 제품 개발 나서

진안군 홍삼연구소가 진안 홍삼을 명품화하는 작업에 나섰다. 진안 홍삼연구소는 2009년부터 추진해온 인프라 구축 중심의 1단계 사업이 마무리됨에 따라 연구소 내에 주요장비를 완벽하게 갖추고 제품개발 등 제품화 사업에 본격 착수했다고 밝혔다. 홍삼연구소는 농림수산식품부 생명산업기술개발사업 기획과제인 ‘농림자원을 활용한 고부가가치 문화관광상품개발’과 지식경제부의 ‘헬스케어 지향 Happy Drug 제품·서비스 적용기술 개발’ 과제에 선정돼 13억원의 연구비를 확보하고 홍삼을 소재로 한 다양한 연구과제를 발굴할 계획이다. 특히 홍삼연구소에서 개발한 제품이 진안 홍삼스파와 현재 건립 중인 에코에듀센터 등 지역 특화산업 인프라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진안 홍삼연구소 최경민 박사는 “생물전환 기법을 활용해 홍삼에 미량으로 존재하는 진세노사이드를 대량 생산할 수 있는 발효공정을 확립하고 기능성이 검증된 소비처 친화 제품을 개발해 진안 홍삼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시장인지도도를 크게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연필뉴스

지리적 표시 등록 군산 ‘찰쌀보리쌀’ 생산 박차

군산 ‘찰쌀보리쌀’의 지리적 표시제 특산품이 본격적으로 생산되고 있다. 군산시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는 “유해물질분석 및 품질검사를 실시해 기준에 합격된 제품을 선별, 1차 분량 20t 등 올해 200t을 출하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군산 찰쌀보리쌀은 지난 2007년 7월

(사)군산 찰쌀보리쌀생산자협회 주관으로 보리작물로서는 전국 최초로 지리적표시에 등록됐다. 시는 본격적으로 지리적표시제 특산품을 생산하기 위해 지난해 50ha의 단지를 조성하고 엄격한 품질관리의 정맥시설 보완작업을 통해 보리품질 향상을 시켰다. /전북취재본부=박희석기자 nohusu@

뉴스 브리핑

道-지방변호사회 재난피해 보호 지원 협약

전북도는 11일 도청 회의실에서 전북 지방변호사회와 재난피해 도민 보호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각종 재난피해를 입은 도민의 조속한 피해복구와 법률상의 구호를 민간전문기관에서 상담·해결할 수 있도록 사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진태호 전북 지방변호사회장은 “양 기관의 공조체제 구축으로 재난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피해복구에서 법률상 권리구제까지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문의(063-252-7710) /전북취재본부=강철수기자 knews@

전주시, ‘바이전주’ 인증업체 34개사로 확대

전주시는 11일 시청 4층 회의실에서 ‘바이(Buy)전주’ 우수상품으로 선정된 복전주농협, 두메산골, (주)샤브 등 3개 업체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바이전주’ 사업 참여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바이전주’ 인증을 받은 우수상품은 기존 31개사에

서 34개사로 확대됐다. 새로 선정된 ‘바이전주’ 우수업체는 친환경 무농약 쌀 ‘뽕단가리’를 생산·판매하는 복전주농협과 닭·오리 등 친환경 축산물생산 업체인 두메산골, 패션모자 생산 업체인 (주)샤브 등 3개사이다. /전북취재본부=강철수기자 knews@

익산시 ‘여성친화 담당관실’ 신설 개소

익산시는 ‘여성친화 담당관실’을 지난 10일 신설·개소하고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다. 익산시는 여성친화도시 발전 단계를 도입기를 지난 정착 및 확산기에 들어섰다고 판단하고 그동안 구축했던 인프라를 바탕으로 시스템과 프로그램을 내실화하기 위해 여성친화담당관 부서

를 신설했다. 여성친화도시 전담 부서 형태를 부시장 직속의 담당관 형태로 구성한 기초자치단체는 익산시가 처음이다. 여성친화 담당관실은 시 모든 부서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여성친화 도시’ 정책에 맞게 추진될 수 있도록 조정한다. /전북취재본부=류정영기자 ryu418@

남원시 15일 시민 참여형 ‘황산대첩 축제’

남원시는 오는 15일 운봉읍에서 ‘황산대첩 축제’를 개최한다. ‘황산대첩’ 축제는 고려말인 1380년 이성계 장군이 이끄는 고려군이 남원 황산에서 왜구 20만 명을 물리치고 대승을 거둔 것을 기념하는 행사이다.

특히 축제 하이라이트인 이성계장군 전승 재연공연은 종전과 달리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참가자 100여명을 모집해 마상무예, 자상무예 시범공연 등 실질적인 주민참여형 축제로 치러진다. /전북취재본부=백성기기자 bs8787@